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8.21.(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위원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시청자평가원 선임 안건

- 시청자위원회는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프로그램(바로보는TV 옴부즈맨)에 현재 출연 중인 임윤주 시청자평가원이 출산 관계로 시청자평가원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후보추천위로부터 후보자 김정원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조교수(예정)를 추천 받음
-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문성, 경력 등 검토와 다수의 의견으로 관련법(방송법 제88조) 및 규정(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시청자평가원 운영규정)에 따라 김정원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함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8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임태순 위원님부터 평소 순서를 역으로 진행 해보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8월 5일 뉴스투나잇 「에너지 공기업도 잇단 중대재해..."가장 높은 패널티"

장한별 기자의 이번 보도는 에너지 공기업 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균형 잡힌 시각이 돋보였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망 노동자의 근무 환경, 정부의 대응 수위, 경영진의 책임 문제, 제도 개선 방향 등 다양한 관점을 함께 다룬 점은 시청자로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한 점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더욱 엄격한 안전 책임이 요구되는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점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경영진 책임 강화 방침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형식적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까지 함께 조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단지 개별 사고에 대한 보도가 아닌, 구조적 문제와 정책 과제를 아우른 종합 보도라는 점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보도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자칫 상징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안전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정부 통계를 봐도 올해 1분기에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숫자가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문제는 인명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저희가 지난달에도 '뉴스프리즘'을 통해서 이런 안전사고, 중대재해 문제를 좀 다루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단독] 현장에 없던 인천 총기사건 관리관...보고서엔 '현장지휘' 2025-08-05, [단독] '평양 무인기' 암호화 없이 투입...비행 경로 그대로 노출 2025-07-24, [단독] 평양 무인기 '자동 삭제 기능' 무용지물...또 부적합 정황 2025-07-29

지난 한달간 연합뉴스TV가 경찰과 군 관련 단독보도를 중심으로 뛰어난 취재 역량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찰과 군은 국가 치안과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민감하고 엄중해야 할 정부 기관으로, 이들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먼저, 경찰 관련 보도에서는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에 관한 단독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후 70분 만에 경찰이 진입하는 등 초동 대응의 미흡함과 현장 지휘관 부재 논란이 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연합뉴스TV가 지난 5일 공문서 위조 관련 의혹과 문제점을 단독 취재로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고 평가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4일 방송된 단독 보도에서는 지난해 평양에 투입된 우리 군의 무인기들에 대한 사전 암호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행 경로와 내부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같은달 29일에는 해당 무인기들의 자동삭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독 보도하여 군 내부의 보안 의식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군 당국이 안보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성찰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번 단독보도들을 통해 연합뉴스TV가 경찰과 군 분야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단독으로 발굴 및 보도하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문제점 지적과 사실 전달을 넘어 관련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향, 전문가 분석 등을 함께 제시한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의 본질과 해결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후속 보도를 통해 사건 이후의 제도 개선 여부를 꾸준히 추적, 검증하는 노력을 지속해주길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몇 개의 단독 기사가 있었었는데 박 위원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거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인천 총기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워낙 크고 충격적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취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독 기사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단독이 중요한 게 다른 언론사 기사와의 차별을 꾀 할 수 있고 또 단독 기사를 씬으로써 당국의 수사나 여러 가지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단독 기사가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인천 총기사고 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관련한 특검 조사 이런 거에서도 지금 계속 연이어서 주요한 사안에 관심을 갖고 우리만의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

- 2025.7.29. 뉴스투나잇 포인트뉴스에서 상반기 마약 적발 '역대 최대' 중남미발 급증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2680kg)이 지난해 같은 기간(298kg) 보다 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적발입니다. 교묘해진 마약 은닉 수법에 대해 관세청 국제조사
과장(최문기)님의 인터뷰 내용은 적절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용 보드 게임, 와인병에 마약을
담은 실제 영상 등은 모방의 위험이 있으니 적발된 밀수품 영상은 직접 보여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시도
가 늘며 중남미발 마약 밀수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관세청에서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마약 출발국 등 주요국과 합동단속을 벌여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침을 세우고 마
약 사범 밀수 정보 입수 및 분석시에 AI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
약 청정국이 아니며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마약의 폐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기적으로 마약 관련 기사 (마약 첫 투약 장소
및 연령, 지역, 부작용 등)를 다뤄 주셔서 연합뉴스 TV 시청자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
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2025.8.1. 뉴스프라임-오늘의 생활경제, 무더위에 식중독 위험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칙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적절한 CG를 이용하여 보도했습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 자료(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요)를 바탕으로 CG를 사용하여
한 눈에 알기 쉽게 한 화면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아나운서의 기사 전달력이
매우 좋아서 식중독 예방법을 오래 기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에 맞는 적절한 기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마약 관련 기사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마약 밀수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아까 지적해 주신 게 밀수품 영상을 직접 보
여주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마약 기사를 쓰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떻게 영상을 보여주고 정보를 제공할 건가 하는 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칫 우리 기사가 모방범죄 같은 데 악용되지 않도록 기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식중독 예방 부분은 앵커리포트 같은 형식으로 '오늘의생활경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보
여드렸는데 이런 식의 앵커리포트 코너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고 알기 쉬운
그런 형태로 정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코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반 리포트 이런
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
서, 많이 만들어내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만들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서연 위원

- 구하림의 인터뷰, 구하림 씨가 진행하는 '인터뷰'는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인물들을 초
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려는 긍정적인 시도가 엿보입니다. 런던베이글 창
업자나 백은별 작가와 같은 인물을 섭외하여 그들의 삶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컨텐
츠는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백은별 작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작가
본인이 기부 경위나 소설을 쓰게 된 계기 등을 매우 조리 있게 설명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
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여서 그런지 아직 진행자 구하림씨만의 뚜렷한 색깔이나 고유한

정체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비교적 가벼운 주제를 다룰 때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의 분량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층적인 대화에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보수논객인 정규재님 인터뷰에서는 전문적인 경제 및 정치 이야기가 진행될 때 구하림 씨가 심도 있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기보다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폐업 100만시대 벼랑끝 자영업자들, 연합뉴스TV 스페셜 '폐업 100만시대, 벼랑 끝 자영업자'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자영업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유익하였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으나 거액의 손실을 입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사장님의 사례나, 대기업 저가 프랜차이즈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폐업에 이르게 된 청년 자영업자의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 사례와 더불어 폐업자 추이, 업종별 폐업자 수,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는 업종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양한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을 통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폐업 현장의 생생함을 담기 위해 철거 업체의 철거 장면을 보여준 것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이는 폐업이 단순히 사업을 접는 행위를 넘어, 물리적으로 공간을 해체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며 자영업자들의 좌절감을 더욱 실감 나게 전달하는 효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 쇼츠에 관한 의견, 연합뉴스TV의 쇼츠 콘텐츠는 오렌지색 계열의 톤을 활용하여 제작되어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주었고, 뉴스 채널로서의 전문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다만 많은 이용자들이 쇼츠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만큼 현재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유튜브 시청자 중 상당수가 쇼츠를 통해 채널에 유입되는만큼 콘텐츠의 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구하림의 잇터뷰'는 오디션을 통해 뽑은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내 인터뷰 코너입니다.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기자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인터뷰입니다. 진행자가 1시간여 남짓한 프로그램을 이끌며 중간에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포맷인데 인터뷰 코너를 시작한 것은 대여섯번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자의 뚜렷한 자기 컬러나 정체성을 100% 부여하지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 횡수가 거듭되면서 경험이 쌓이고 노련미가 더해지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영업자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저희가 앞으로 자영업자 관련 보도는 조금 더 공을 들여가지고 더 노력해서 완결도가 높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가 아직은 쇼츠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쇼츠가 굉장히 적었는데 연초부터 우리가 쇼츠를 좀 늘리자 해가지고 지금 꽤 많이 늘린 상태이고 이거보다 추가로 더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 [여의도풍향계] 자녀 등하원에 강아지관리까지...갑질 사각지대 놓인 보좌진들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연일 터져나오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강선우 의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가 퇴근 후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고,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유명 정치인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처럼 일회성 기사로 끝났으면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언론의 지속적 보도로 인해 갑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합니다. 갑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갑질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므로 언론에서도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등 추가적인 취재로 앞으로 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이상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388회 : 폐업 100만 시대 벼랑 끝 자영업자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도 OECD 평균 16.6% 보다 높은 23.5%이라는 것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카페, 베이커리, 치킨집, 식당 등 일부업종에서 자영업자간 과당경쟁 뿐만 아니라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자영업자의 폐업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소비의 주체인 자영업체의 몰락은 구매력을 갖춘 소비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생산의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 자영업자 대표님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감있게 잘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8년 시행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이 소상공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해외 자영업자 지원제도 및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자영업자 활성화 방안 등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갑질 사각지대 놓인 보좌진들은 워낙에 사안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니다. 저희는 '여의도풍향계' 코너에서 다뤘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의도에서 움직이는 정국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코너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 기사를 한번 다뤄봤고요. 이게 여의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 보좌관들한테 갑질을 하는 게 오래된 관행인지 팽배하게 지금 일반적인 일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런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이번에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일반적으로 돼 있는 것까지 그것까지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또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갑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갑질이 이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보도를 통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문제는 지금 자영업자가 워낙 많고 다들 힘들다고 하고 또 이런 문제는 계속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다뤄줘야 될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금 갖춰져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과연 정부 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

노보, 위고비 약가 최대 42% 인하..."환자 치료 지속성 최우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위고비 뉴스를 접했고요. 대체적으로 위고비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셨어요. 이제 가격 정책 조정하는 거 하고 지금까지 용량별로 똑같은 동일한 공급가였는데 이제 차등화해서 가격이 조정된다는 내용 또 그리고 포괄적인 환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처방 환자 전용 지원 프로그램 노보핏케어를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처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뢰진과의 논의 또 모니터링 당국과의 소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포괄적인 환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나온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제 주위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심심치 않게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소식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서 초고도 비만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욕 억제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도 이제는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목적의 처방 및 약물 처방은 문제가 없을 듯하나 치료 목적을 벗어나서 이제 오남용의 문제도 있고 우려도 있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관심 분야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소비자 알 권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연합뉴스TV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다이어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짚어봤는데요. 의료기관의 부적합한 의료 행위는 없는지, 소비자 부작용 사례에 대한 그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또한 내성이 생기면 끊기도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 다이어트 시장의 변화는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보조제 등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을 넘어서 이제는 SNS를 통한 다이어트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보 측의 설명대로 환자 소비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과연 적절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다이어트 식품 의약품에 대한 정보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간과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침과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다이어트 산업에 대해서도 연합뉴스TV에서 이런 추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위고비라는 이 다이어트 약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제 주변에도 굉장히 이거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자기가 직접 주사를 놓고 뭐 이러는 거 같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또 일종의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걸 본격적으로 저희 매체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은 없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냥 정보전달 정도의 기사를 쓴 적이 있지만, 한번 연내에 저희

가 뉴스프리즘이나 스페셜을 통해서 위고비라는 약이 어떤 거고 과연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오남용 우려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 김광석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387회 : 코스피 5,000목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려면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가 유사한 외국 기업대비 저평가 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 분석과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 그리고 불공정거래 등 약 23분간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식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의 핵심인 배당을 보면 '주요국 상장사 배당성향'분석에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못한 낮은 수준이고, 그 원인이 세금 때문인데 배당소득 과세체계에서 2000만원 초과시 49.5를 누진세율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내용 등 최근 관심사에 대한 언급이 시의적절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 [출근길인터뷰] "반려 생활 지식 높여요"...서울시 '반려인능력시험' 신청 접수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반려인능력시험'을 실시한다는 출근길 인터뷰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반려인에게는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분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에 '반려인능력시험'에 대한 정보는 반려견을 키우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많은 도움이 된 정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정보들을 연합뉴스TV가 시의적절하게 방송을 해 주셔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저희 PD가 만드는 제작물인데요. 지금 주식투자 인구가 워낙 많고 특히 젊은 MZ세대들이 서학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어떻게 더 좋은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관심들이 많고 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기업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당연히 다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더욱더 많이 핸들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출근길 인터뷰'에서 반려인능력시험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것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출근길 인터뷰라는 게 아침 7시 45분에서 8시 사이에 한 3~4분 정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장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때그때 관심이 가는 사안들을 놓고 출근길에 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게 되게 나름 인기 있는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반려인능력시험이라는 게 원래 독일에 있는 제도인데 서울시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고 이게 5회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건데 필기시험도 있고 또 실기 시험도 있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일종의 애완동물들이죠.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기초 상식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또 관련 소정의 상품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이고 지금 집집마다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이니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들 향해 사제 총 쏜 60대 기사를 보면서(7월 21일 16시)

본 기사는 16분 20초 짜리 온라인영상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총포제작이 가능해진 사회라는 점과 점점 붕괴되어가는 가족현실을 고발하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가정불화가 원인, 유튜브에서 총포제작 등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패널은 총과 관련하여 폭발물 제작, 망상 등의 원인 설명, 통제 조치로 총포화학적 위반인 경우 3년이하 700만원 벌금이지만 정신감정으로 판명되면 처벌불가라는 설명까지 유익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진행자의 질문 부족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는 패널(모 변호사)의 준비도 충분치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제총기제작이 온라인환경 접속으로 하루만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려해 온 터라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구축되었다고 예측했습니다. 16분이상의 영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문제의 심각성 지적,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 여부 확인, 시기에 적합한 범죄예방 교육 실시, 부모자녀 교육의 중요성 등을 골고루 다룰 수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즉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기술환경의 편리성을 악용/남용하는 미성숙한 어른/청소년에게 통제장치의 엄중함을 알게 해주고 건전 시민에게 안전사회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 씬속뉴스 <올타임 레전드 입학과 동시에 졸업사진부터 준비하는? 의정부고>(1분 8초짜리 영상) 매년 졸업시즌이 되면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방시혁, 흑백요리사에 나온 정지선셰프, 전설적인 게이머, 유심칩 현실풍자, 백범 김구등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타방송사는 이 정도면 예술의 경지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씬속뉴스에서 다른 여러 영상과 달리 내레이션이 없었습니다. 영상에 대한 평가를 댓글로 확인해보니 4명의 댓글만이 있었습니다: 2명은 풍자 패러디, 졸업사진준비비용이 엄청나다, 다른 2명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나까. 돈 쏟아부어 하는 것이 아니다. 졸업 앞 둔 청소년들이 만든 이 졸업영상은 매년 여러 매체에서 기사거리로 띄워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평가하는 인기는 현실에서 느끼는 반응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4명의 댓글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씬속뉴스 제목(입학과 동시에 졸업사진 준비하는)에서 설명해주어야 할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레이션이 필요한 영상입니다. 졸업영상 제작에 참여한 학생의 목소리가 아닌 주변의 반응(학교관련인, 동료학생들, 청소년동아리, 지역사회분위기 등)도 함께 다루어주는 영상을 제안해 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사제총 관련 제작물은 저희가 보통 사건이 터지면은 당장 이 사건에 대해서 리포트를 만들거나 기획물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바로 어떤 사안의 분석이 필요할 때 변호사 패널이나 사건 패널을 스튜디오로 불러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아마 그런 형태의 코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다뤄지지는 못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코너를 운영하는 거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빨리 짚어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각적이진 못해도 좀 신속하게 어떤 사안을 짚어주기 위해서 한 코너여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조금 양해를 구하겠

습니다.

- 씬속뉴스는 저희가 내레이션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내레이션이 안 들어갔던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유튜브 추세가 내레이션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체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 내레이션을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

- 뉴스특보 유기적 편성 돋보여, 보도 채널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시청자들이 물리게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기록적 폭우,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체포 재시도, 김건희 영장심사 등과 관련해 뉴스특보를 편성해 현장 연결, 기자출연 또 현장의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입체적인 전달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보도채널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장성, 속보성, 즉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제 증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시청자 제보를 통해서 받아서 그걸 잘 틀어줄 것이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계속 출연하게 되는데 항상 변호사 출연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가 연속 출연해서 6시 55분부터 9시 40분까지 혼자 그냥 했던 얘기 똑같이 또 얘기하고 또 비슷하게 얘기하고 질문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의 방식과 내용 이런 것들을 어차피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시간대별로 다 다른 변호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급박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고 사건이 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을 잘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가 요즘 특보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 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벌써 한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보 체제를 운영할 경우 보도국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가급적 어떤 사안이 터지면은 기자 출연을 원칙으로 많이 합니다.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고 상황과 전망도 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기자 출연 외에 나머지 공백의 시간들을 이제 다양한 출연자들 패널들로 보충, 보완해가지고 저희도 보도를 이어나가는데 아마 당일 같은 경우 저희가 김건희 영장 심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날이 보통 영장 심사 결과가 자정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날은 초저녁 무렵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패널 인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남은 한 네다섯 시간을 추가로 더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했던 저희가 6명 패널을 변호사 패널을 준비했는데 패널섭외가 안 돼가지고 사실상 김성수 변호사한테 거의 SOS를 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추가 섭외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섭외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응 예측을 좀 안이하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 주 4.5일제 시범사업 관련 현장 취재 보도,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제도적 논의를 현장 기업과 직접 연결해 보여줌으로써 실질적 효력이 있는 전달력 확보를 통한 정책 실험의 현장

성과 생동감있는 취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배경, 참여 지원금 구조 등 정책 메카니즘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시청자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44개 세부지표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설명이나 시각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가 포함이 되어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수 있는 가족생활, 자기계발 등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가 다소 약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업무 효율 증가가 아닌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 관점에서 보다 심도깊은 설명이 수반되었다면 시청자의 공감과 관심을 더욱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지속 사태와 정책 대안 보도 분석, SKT 유심 유출 사건 이후에도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단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있어서 보안 차원의 구조적 취약성 문제를 깊이있게 다룬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벌어지는 유출 양상을 소개하며 사안의 범위와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였으며, 과징금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구독형 보안 서비스, 정보 보호 투자 공시 등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소개함으로써 심층적이고 정책지향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점검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시청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행정 대응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고의 반복 이유, 기업의 대응 미비 원인 등에 대한 부수적 해설이 부족하고,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고통, 혼란, 피해 구제 과정 등은 언급되지 않아 시청자의 공감을 형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향후 보도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시민 행동 요령, 정책 실행의 현실성 문제, 취약 업종의 실제 현장의 목소리 등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정보 제공과 시청자 공감 중심으로 전달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산업재해 반복 실태와 대응 분석, 사망사고만인물 지표를 활용하여 일본·독일과의 비교, OECD 평균과의 격차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 심각성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태안화력·맨홀사고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책임 회피와 구조적 안전 방기 문제를 명확하게 짚은 점은 보도의 공익성과 경각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무관용 원칙 필요하다"는 원론적 정리는 있었으나 선진국형 안전 시스템, 교육 방식,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사례 등 구체적 대안 제시가 병행되었더라면 정책적 실효성이 더욱 높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 후반부에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과제 중심으로 전개되어, 노동자 개인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본질적 문제의식이 흐려질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생명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 중심 시각을 더 선명하게 전달했으면 메시지의 힘이 더욱 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4.5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스프리즘에서 세 꼭지 리포트를 다뤘는데 내용중에서 4.5일제로 갔을 때 어떤 결과나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작부서에서는 이미 주 5일제로 됐을 때 워라벨 등의 사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다고 또 그런 부분은 조금 덜 다루고 이 4.5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개라든지 가져올 어떤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4.5일제는 본격 논의가 진행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프리즘은 물론, 일반 기획 리포트, 제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망과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뉴스를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터치를 못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짧은 2분짜리 리포트였습니다.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에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구독형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를 지적해 주는 데 그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산업재해 중대 재해 문제는 워낙 큰 사안이어서 지금 엇그제도 열차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 중심 시각에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서 좋은 기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